

기쿠치 계곡에 서식하는 어류

기쿠치 계곡의 차갑고 맑은 물에는 두 종류의 물고기가 서식한다. **산천어**는 연어과 물고기인 송어가 바다로 내려가지 않고 강에 남은 종류로서 빨리 헤엄치며 몸길이가 최대 35 센티미터까지 자란다. 경계심이 강하고 겁이 많은 성격이지만 낚시가 금지된 계곡의 연못을 한가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.

1950년대부터 시작된 공업화에 따라 기쿠치가와 강의 환경이 변하면서 한때는 상류 지역에서 모습을 감추었으나, 최근 수십 년 동안의 방류가 결실을 맺어 현재는 자연 부화가 가능한 개체군으로 간주되고 있다. 산천어가 알을 낳는 곳은 계곡의 긴 쪽 산책로 너머에 있는 히로카와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부근에서 눈에 띈 경우가 많다. 기쿠치 계곡 주변의 음식점에서는 산천어 소금구이를 먹을 수 있는데, 이 산천어는 근처 양식장에서 들여오고 있다.

산천어에 비해 **벼들치**는 꽤 작고 계곡에서 제법 많이 볼 수 있다. 녹색이 도는 금색에 배가 희고, 몸길이는 10 센티미터 정도로서 서일본의 차가운 강 상류 지역에 서식한다. 산간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일상적으로 먹어왔으나 특별히 맛있는 물고기로 보지는 않는다. 산천어와 마찬가지로 기쿠치 계곡에서는 히로카와라에서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다.